**고후1209 Note**

**◆우리의 능력 : 그발 앞에 엎디어/썬다 싱**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봉사하기를 주저하는 자가 있다.

그런 사람은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을 모르고 있다.

고후1209. 이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니라, 내 은혜(호의)가 네게 충분하니라, 이는 나의 힘[뒤나미스: 힘,능력,이적(異蹟),힘있게,권능,강력,폭력,일,권력,세력]은 약함 가운데서 완전하게 됨이라. 그러므로 매우 기꺼이 내 연약함들 안에서 내가 차라리 자랑할 것이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능(뒤나미스)이 내 위에 머무를 것이니라.

그런 사람은 병이 낫고 자양물을 먹으면서도 허약한 병자 같은 사람이니, 그것은 그들이 적당한 운동과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 나를 믿고 나아가 죄인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활동이 얼마나 필요한가?

**두려움을 극복하라! / 프랜시스 프랜지팬**

영적전쟁을 수행하라고 주님께서 바로 당신을 부르셨을 때,

당신은 혹시 주님께서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건 아닌가하고 느낀 적이 있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만약 주님께서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싸울 그 누군가를 원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 대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남겨두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말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적절한 인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부적격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부적격자인 우리가 바로 적격자인 것이다.

바울은 말한다.

Ω고전0126.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이니 곧, 육신을 좇아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세력있는 자들이 많이, 고귀한 자들이 많이 부름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라.

고전012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중간태), 또 세력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느니라.

고전0128. 그리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니라, 그뿐 아니라, 무엇인 것들을 영(零, 無)에로 데려가기 위해, 아닌 것들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힘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지고는 "있는 것들을 폐하실" 수 없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강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다.

그분은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며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들, 즉 자신들이 부적격자라는 것을 나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더욱더 약해질수록 우리의 전투에서 주님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신다.

주님은 본능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중이다.

(프랜시스 프랜지팬이 지은 "지금은 싸워야 할 때" 중에서...)